

에이스 역할은 “믿음 주는 투구로 긴 이닝 책임”



KIA 에이스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네일, 경기 운영 핵심은 ‘초반 카운트 선점’

슬라이더·커터 등 타자 맞춤형 구종 다양화…승부구는 투심 배터리 호흡 ‘굿’…매 순간 집중, ‘3년차 경험’ 위기 관리 도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네일이 시즌 초반 안정적인 흐름 속에 자신의 투구 철학을 드러냈다. 핵심은 ‘카운트 선점’이었다.

지난 1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네일은 다음날 키움전을 앞두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올 시즌 3경기에서 18이닝 5실점(평균자책점 2.50)을 기록 중이다. 표본은 적지만, 지난해 225, 통산 239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출발이다.

네일은 첫 3경기를 돌아보며 “개막전에서는 준비한 부분을 최대한 보여줬고, 초반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며 리드할 수 있었다”며 “반면 NC전은 초반 카운트를 잡지 못해 어려운 경기였고, 한화전에서는 공격적인 투구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 흐름은 결국 볼카운트 싸움에서 갈렸다. 네일은 “각도를 작게도, 크게도 가져갈 수 있고, 횡·종 움직임을 모두 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구종”이라며 “특히 타자가 직구를 예상할 때 미세한 움직임을 주는

구종이 다양해지고, 투구 수를 줄여 더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다”며 “삼진이든 땅볼이든 결과적으로 아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주도권은 곧 구종 선택과 이닝 소화로 이어진다. 그의 경기 운영을 관통하는 축이다.

구종 운용에 대한 질문에는 상대 맞춤형이라고 답했다.

시즌 초반 슬라이더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특정 구종을 의도적으로 늘렸다기보다는 타자 라인업에 맞춰 비율을 조절하고 있다”며 “리그 3년 차로 접어들면서 타자들이 익숙해진 만큼, 오히려 타이밍을 꼬이게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커터는 상황에 따라 활용 폭을 달리하는 카드다. 네일은 “각도를 작게도, 크게도 가져갈 수 있고, 횡·종 움직임을 모두 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구종”이라며 “특히 타자가 직구를 예상할 때 미세한 움직임을 주는

용도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포심 패스트볼 사용이 적은 이유도 언급했다. “포심은 내게 가장 강한 구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타자들 역시 투심에 비해 포심은 상대적으로 대응이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투심 위주의 승부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네일은 “이견이 다를 때도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어 차이가 있지만 한준수, 김태근과의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그는 “이전에 위기를 극복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한 구 한 구에 집중하려 한다”며 “전체 상황보다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이스의 기준도 뚜렷하다. “우리 팀 선발진 모두가 에이스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 역할은 6-7이닝을 책임지며 수비 시간을 줄이고, 팀이 이길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개인 목표보다 팀이 먼저다.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것. 그는 “팀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약속했다. /주홍철 기자

“매 경기 최선…한 걸음, 한 걸음 우승 향해 전진”

정운성, 19일 개막 광주오픈국제첼린저 단·복식와일드카드 출전

2026 광주오픈국제남자첼린저대회(이하 광주오픈)에 출전하는 정운성(국군체육부대)이 대회를 앞두고 선전을 다짐했다.

정운성은 오는 19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 복식 와일드카드와 단식 예선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한다.

그는 16일 진행된 사전 인터뷰에서 “작년과 같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운성은 광주오픈 첼린저에 6차례 출전한 경험이 있으며, 이 대회 단식 16강과 복식 4강이 최고 성적이다.

그는 지난 3월 ‘2026 순천만 국가정원배 순천오픈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우승과 지난 4월 ‘2026년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함양대회’ 남자 복식·단식 금메달을 차지하며 경기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개막한 2026 부산오픈 첼린저 대회에서는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광주오픈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다시 신발끈을

묶는다. 정운성은 “이번 대회 우승이 목표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작년보다 경기를 많이 치르며 준비해왔고, 정성운 감독과 함께 잘 준비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컨디션을 조정한다. 정운성은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답답함이 있지만 포인트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며 “미스샷이나 아쉬운 장면을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자신 있는 플레이로는 서브와 포핸드를 꼽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격적인 스타일로 경기해온 것이 강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정 경기 대상 없이 모든 경기에 동일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정운성은 “첼린저 대회는 더 높은 랭킹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수준 높은 선수들과 경쟁하며 경험을 쌓는 중요한 무대”라며 “모든 선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의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다. 정운성은



2026 광주오픈국제남자첼린저대회에 출전하는 정운성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최근 경기장 밖에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 놀라기도 한다”며 “선수는 팬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는다”고 웃었다.

이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에서 21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남 요트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요트, 대통령기시·도대항전 ‘금6·은3·동1’ 선전

21년 만에 종합우승 ‘금자탑’

전남 요트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에서 21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요트 선수단은 지난 15일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종합득점 880점으로 2위 강원(810점), 3위 경북(780점)을 따돌리고 2004년과 2005년 대회 2연패 이후 21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는 600여명이 참가해 5개 종목 11개 클래스로 나눠 열렸다.

전남 요트는 여수시청 강경주·이경진 조가 남자일반부 470 혼성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게임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박성희(부영여고 3년)는 ILCA6 여자 중·고등부에서, 박준수(예당고 2년)는 남자 중·고등

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정지혁·서민준(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포츠클럽, 보성고 1년)이 29er 남자 중·고등부에서, 최은호(여수공공스포츠클럽, 웅천초 6년)와 박다을(보성비봉마리나요트, 보성노동초 6년)은 옵티미스트 남·여 초등부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은메달 등 상위 입상도 이어졌다.

ILCA4 여자중등부 박이루다(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포츠클럽, 보성여중 2년)를 비롯해 옵티미스트 여자초등부 김지원(여수공공스포츠클럽, 여수중고초 6년), 여자 중등부 고민서(보성비봉마리나요트스프츠포츠클럽, 예당중 2년)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옵티미스트 단체전에서도 박이루다, 고민서, 이승호(무선중 2년), 김단아(여수공공스포츠클럽, 여남초 6년)가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남 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박희중 기자

빛고을 이름으로…우의 다지고, 기량 펼치고

광주시체육회가 16일 오후 4시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광주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구제길 동구체육회장, 정천규 서구체육회장, 정희환 북구체육회장, 배영모 광산구체육회장, 윤용철·박종규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등 종목단체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필승을 다짐했다.

행사는 선수단의 훈련 모습과 주요 활약을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선수단 참가계획 보고, 당구 박종문(79세)·제조 전양숙(74세)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단복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23일부터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광주는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 700명(선수 626, 임원 74)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결단식은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로, 광주선수단

광주시체육회, 오는 23일 개막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필승 결단식



16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광주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연패 탈출’ 돌파구 찾아라

19일 오후 2시 울산HD 원정맞대결

최하위로 추락한 프로축구 광주FC가 울산 원정에서 연패 탈출과 함께 시즌 첫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문수축구경기장에서 리그 2위 울산 HD FC를 상대로 K리그1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최근 3연패로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광주는 이번 경기를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부천FC1905와 지난 7라운드 홈경기에서 0-1로 아쉽게 패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광주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슈팅 8개,

유효 슈팅 4개를 기록하며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눈에 띈다. 안혁주, 정지훈, 문민서, 김윤호, 김용혁 등 신예 선수들이 실전 경험을 쌓으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던 이정규 감독의 복귀와 함께 주세중, 최경록이 다시 합류하며 전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경기의 핵심 과제는 골 결정력이다. 현재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려 결정력까지 보완된다면 울산상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박희중 기자